



박명숙 작가가 오스트리아 갤러리 암파크에서 9월 14일~18일 '한국의 미'라는 주제로 전시를 연다. 운수자를 배경으로 촬영한 작품 '미움'

무심으로 빛은 자연의 美 유럽서 선보여

박명숙 작가, 9월 14일~18일 오스트리아서 도예전



전남 화순에 위치한 도예가 박명숙 작가(사 진)의 작업실에서 씩방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20여년 108 배 수행을 하고 있는 그는 아침마다 씩방사에 가서 기도를 끝내고 돌아와 <전심법요> 등 법문 CD를 틀어 놓고 작업에 임한다. 그렇게 불심의 마음으로 흙을 빚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형상들이 무심으로 빛어지면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의도성(?)이 없다. 그저 마음 가는대로 손 가는 대로 툭툭 무심으로 빚다보면 어느새 그의 손끝에서는 연화상 세계가 펼쳐진다.

서 연꽃과 연잎을 주제로 하는 도자 작품 12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전(향아리 입)이 두 겹, 세 겹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기존의 도예 작품들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자연 속 꽃잎이나 잎을 소재로 즐겨 삼아 왔던 작가만이 독창적으로 도전해 얻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백자의 안

화순 씩방사 인근 작업실서 작업 연꽃과 연잎을 주제로 12점 선보

에만 유약을 바르고 표면은 가마의 장작불이 만들어 내는 자연색을 추구해 주목 받아왔다. 이처럼 소나무 장작 가마를 고수하고 손 작업만을 추구하는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도 천연의 미를 그대로 담았다. 작가는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는 도자기의 중추국이며 스와브르스키 보석이 유명한 나라

이기도하다. 인공적으로 세련된 보석이 유명한 나라에서 천연의 미를 강조한 제 작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하다"며 전시를 여는 소감을 전했다.

작가는 앞으로도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정형화된 규격에서 탈피한 작업으로 무심의 마음을 담은 작품을 빚어내고자 한다. 또한 12월 10일에는 서양화가이자 친연인인 박경숙 씨와 함께 인사아트센터에서 '연을 위한 그림과 도자기' 전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소설가 정찬주 씨의 아내이기도 한 박명숙 작가는 국영기업체 직원이었다. 천주교 신자였던 남편을 만나 불교로 개종하고 오랜 시간 수행을 이어왔다.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10여 년 전 시작한 도자기는 운명 같은 것이었다. 조선백자의 전통을 잇는 지현 김기철 선생의 문하에서 도자작업을 익혔고 전남도립대 도예산업디자인과에 입학해 이문을 겸비하는 등 열정을 쏟아왔다. 현재 그녀의 법명인 무량광에서 이름을 따온 '무량광도예'를 운영하며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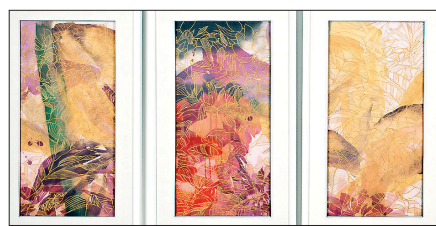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남미 야생식물 동서양 융합 회화기법으로 탄생

정윤영 개인전 9월 11일~17일

정윤영의 '그때 그 감각, 추상(追想)하다'가 9월 11일~17일 중구 서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며 관찰한 야생식물에 대한 경험과 기억에 대하여 이야기를 화폭에 펼쳐낸다.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국민대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정윤영은 야생 식물의 이미지를 고려불화의 채색 기법인 '배채법(靑彩法)'과 순수서양회화 방식

을 접목시켜 표현해 눈길을 끈다. 작가는 "14세기 고려불화에서 가장 많이 쓰인 대표적인 채색 기법이 배채법이다. 불화에 사용되는 비단이나 모시, 분채 등의 소재를 사용해 현대 평면 회화 작품에 접목시킨 것이 이번 작업 시리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남미의 야생 식물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필선 역시 불교미술에서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불교미술은 내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배채법에 서양화 기법을 도입한 정윤영 작가의 작품(부분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동·서양의 작업 방식을 융합한 30여 작품을 통해 자전적 경험의 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다. (02) 2273-9301 정혜숙 기자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재미있으면서도 따뜻한 '오컬트 로맨틱극'

TVN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마흔 다섯은 귀신이 와서 서는 것이 보이는 나이

참대 발같이 참대 발같이 겨울 마늘 널 풍기며, 처녀 귀신들이 돌아와 서는 것이 보이는 나이

귀신을 기를 만큼 자긔치는 못해도 처녀 귀신하고 상면(相面)은 되는 나이. -미당 서정주의 '마흔 다섯'



주인공들의 최종우물을 희극적으로 그린 오컬트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상처 입은 영혼 서로 보듬어 사무량심(四無量心) 지니면 모든 정한 씻을 수 있어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를 만난다. 그리고 최성재는 양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하나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강은희를 차로 친다. 복잡한 심경을 지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최성재의 역할을 입주환은 무리 없이 잘 소화했다.

'오 나의 귀신님'은 재미있으면서 따뜻한 오컬트 드라마이다. 재미는 요리라는 시대적인 아이템을 가져왔고, 희극적인 요소를 덧붙인 데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따뜻한 정조는 상처 받은 인물 군상들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오 나의 귀신님'을 보면서 필자는 사무량심(四無量心)을 떠올렸다. 사무량심이란 불교의 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의 자비심을 일컫는다. 사무량심은 자(慈)·비(悲)·희(喜)·사(捨) 등 네 가지 무량심을 의미한다.

자무량심은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베풀어 주는 마음가짐이며, 비무량심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의 세계에서 구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는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자무량심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비무량심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희무량심은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버리고 낙을 얻어 희열하게 하려는 마음가짐이며, 사무량심은 모든 중생을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마음가짐이다.

사무량심은 자비를 상징하는 십일면 관음의 조상(彫像)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곧 십일면관음의 11가지 모습 가운데 불면(佛面)을 제외한 10가지 모습은 이 사무량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필자가 미당 서정주의 '마흔 다섯'을 인용한 이유도 사무량심을 지니길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흔히 나이 마흔을 불혹(不惑)이라고 한다. 그 어디에도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마흔살이 아니라 여든살이라고 할지라도 중도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선(善)과 악(惡), 미(美)와 추(醜), 진(眞)과 망(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양편을 여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본다. 삶이 사람의 일인듯, 죽음도 사람의 일인 것이다. 소위 '귀신'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양극으로 남아 있는 정한의 감정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처럼 자무량심을 지니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처럼 비무량심을 지닌다면, 모든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희무량심과 사무량심을 지닌다면 어떤 관계에서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무량심을 지닌 사람은 세상의 모든 정한을 맑게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마흔 다섯'에서 '처녀 귀신들이 돌아와 서는 것'이라는 표현은 들끓는 청춘을 되돌아볼 줄 아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처 입은 타인의 가슴을 어루만질 줄 아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불제자라면 '귀신을 기를 만큼 자긔치는 못해도, 처녀 귀신하고 상면(相面)'은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유용오 작가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퇴마·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역사 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1편 처방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이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이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앓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품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현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가격 14,000원 (배송비 별도) | 구입 054)734-1767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낫지 않는다.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9권 출간! 수산, 분양, 섭현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승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